

Economy Brief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투자 급등으로 전이 중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으로 8월 일평균 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던 국내 설비투자 모멘텀이 3분기 들어 크게 강화됨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이 올해 국내 GDP성장률은 물론 내년 성장률 수준의 추가 상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큰 흔들림 없이 진행 중

8월 국내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68.7% 증가한 982.5억 달러로 월간 수출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통상 7월과 8월 수출은 휴가 시즌 영향으로 수출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반도체 수출 슈퍼 사이클로 예외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동월 72.5% 증가한 44.7억 달러로 지난 6월(45.3억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내용적으로는 기존 흐름과 큰 변화가 없다.

첫째,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속에 반도체 제외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8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209%, 반도체제외 수출은 전년동월 20%로 반도체 수출이 국내 수출을 여전히 강하게 견인했다. 8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대변하듯이 국내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 수출이다.

둘째, 중국 수출 급증 추세다. 8월 국가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대미국과 대EU 수출 증가는 전년동월 각각 89%와 15% 증가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월 119%를 기록했다. 최근 대중국 수출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 기준 24.5%로 22년 3월 이후 최고치다. 당사의 지난 8월 25일자 보고서(수수께끼 중국 경제, 문제가 없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올인(All-in)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이 국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8월 1~25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320% 증가하면서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셋째, 무역수지 흑자 규모 확대 추세다. 8월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7.5억 달러로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8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5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하반기 들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3분기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00~2,500억 달러 수준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명목 GDP 규모가 약 1조 8,700억 달러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GDP 대비 약 12%내외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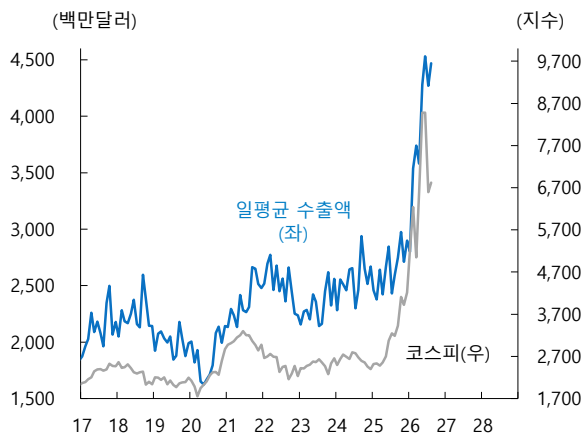
무엇보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확대와 중국 AI 올인 정책 등은 국내 반도체 수출 슈퍼 사이클을 더욱 강화시킬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내 수출 경기는 물론 국내 성장률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 슈퍼 호황이 국내 설비투자 급증으로 전이되고 있는 중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던 국내 설비투자 모멘텀이 3분기 들어 크게 강화되고 있다. 7월 전월 및 전년동월기준 각각 6.9%와 22.5%로 급증했던 설비투자가 8월에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8월 전월 및 전년동월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7.5%와 24.9%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중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각각 4.4%와 6.3%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설비투자 호조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시그널이다. 설비투자 호조와 더불어 각종 제조업 심리지수도 동반 급등하고 있음은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의 온기가 국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가 지난 8월 28일 보고서(한은 수정 경제 전망: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수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에 힘입어 한은이 수정 전망한 올해 국내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 내년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과 유사 혹은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전히 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을 즐겨야 할 시점이다.

그림1.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8월 일평균 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함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수출증가율: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절반 수준에 근접하는 등 사실상 반도체 수출이 국내 수출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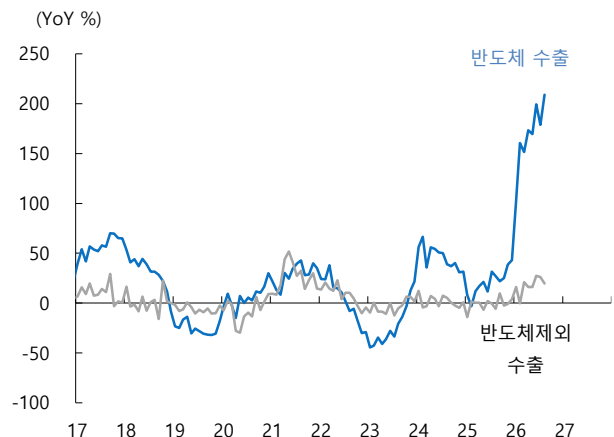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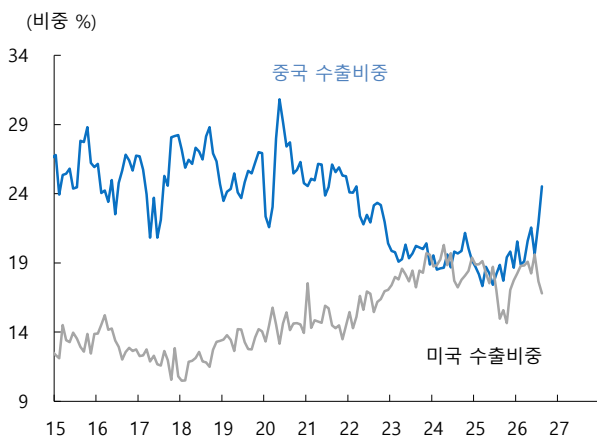


그림3. 대중국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25% 수준에 근접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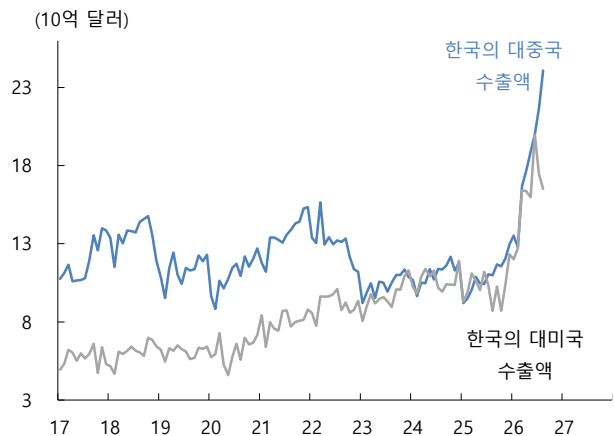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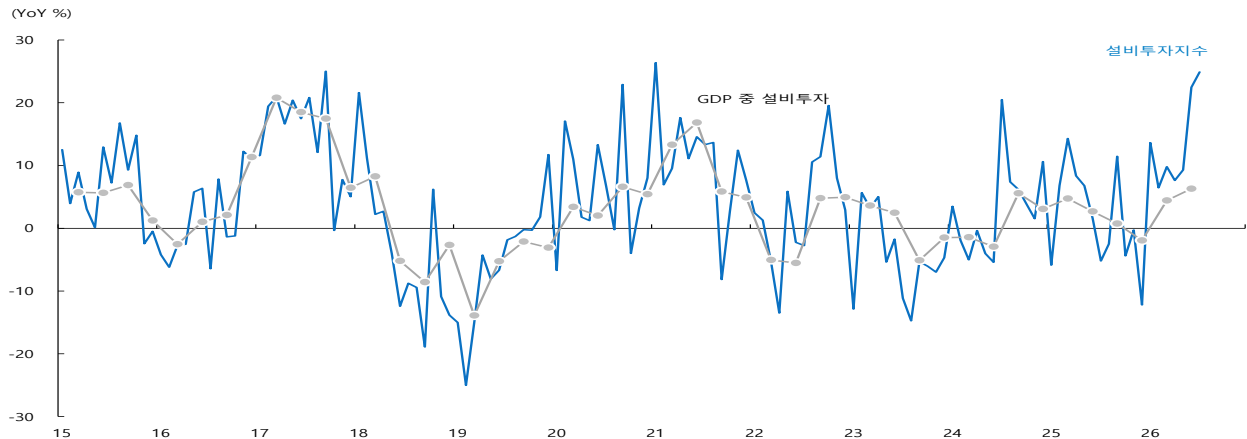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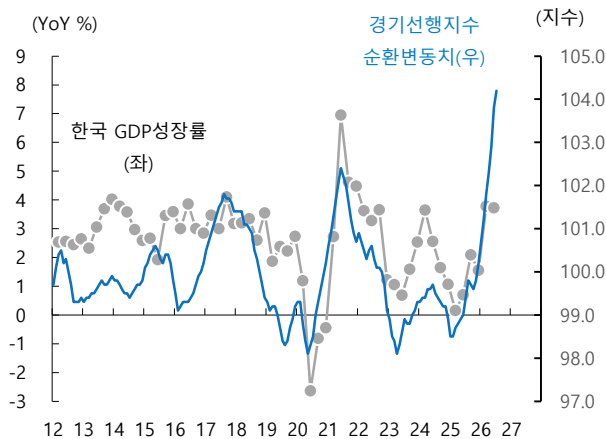


그림5. 7~8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동월 20%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하반기 설비투자 확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국내 경기선행지수는 국내 성장률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시사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한국은행 시나리오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상하방 리스크

(%, %p)	2026	2027
기본 전망	3.3	2.9
반도체 경기(낙관)	0.2	0.6
반도체 경기(비관)	-0.1	-0.4
중동 상황(조기 진정)	0.1	0.2
중동 상황(교착 장기화)	-0.1	-0.3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